

국립목포대, 지역관광 활성화 공모전 '대상'

청연팀 '블루웨이 목포'...지속가능 관광 방안 호평 참여 10개대 관광거점도시 기반 업무협약 체결도

“목포시의 관광이 활성화되면 목포대학교가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기획하게 됐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재학생들로 꾸려진 '청연' 팀이 최근 부산 BEXCO에서 열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우수한 아이디어의 실제화 및 후속 성과 창출을 위해 총 10개 대학(국립목포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WISE, 부산여대, 국립안동대, 울산대, 전주대, 제주대, 국립한국교통대, 한남대)이 참여해 각 대학의 교내 예선을 거쳐 선발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경합을 펼쳤다.

국립목포대에서 선발된 '청연'팀의 '블루웨이 목포(BlueWay Mokpo)' 아이디어는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한 테마거리 조성, 계절별 이벤트 진행 등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블루웨이 목포'는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색인 블루 계열을 통한 컬러 마케팅으로 브랜드와 시거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공모전에 참여한 10개 대학은 관광거점도시 기반 업무협약식을 통해 ▲지자체 및 지역단체·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모색 ▲협약 대학 간 문화관광산업 공유·협업을 통한 공동성과 창출 및 확산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 ▲지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의 협력을 약속했다.

성재오(문화콘텐츠학과 2학년) 청연팀 팀장은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의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배움과 성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돼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찬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며 “지자체·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의 실현을 도모하고, 지역 기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전남대병원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출범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을 출범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병원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정신 병원장, 주성필 기획조정실장, 김영민 사무국장 등 보직자와 새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열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병원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과 제도 개선 제안 및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외부 부패방지시스템이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20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정갑주 법무법인바른길 변호사(전 광주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장), 정용기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장), 최영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장(전 MBC광주문화방송 사장), 박정열 대동고 이사장(전 광주시치과의사회장)이 위촉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정신 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은 지난 4년간 청렴시민감사관의 자문과 제안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의 출범으로 보다 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전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전문가 역량 강화 세미나

전남도는 지난 11일 동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산림복지서비스 전문가의 역량 강화와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2024 산림복지서비스 관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전남도 산림복지서비스 현황이 발표되고, 산림문화 콘텐츠 연구소 대표이자 한국의국어대 겸임교수인 유영초 박사가 산림 교육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법 강의를 했다.

강의에선 AI 시대 산림 교육과 산림문화의 의미와 과제, 한국 교육과 문화의 원형인 '케이(K)-포레스트' 프로그램 개발 원리와 방법론

등을 다뤘다.

현재 전남에는 치유의 숲 10개소가 운영 중으로 2025년까지 2개소를 추가 개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연휴양림 16개소, 유아숲체험원 29개소가 조성돼 있으며 국립숲체원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산림복지서비스 분야 관계자의 산림교육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AI 시대 산림 교육과 산림문화 발전 방향을 모색, 지역 산림 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쌀 가공식품 홍보·소비촉진 캠페인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는 12일 “전남 옥과농협 문화센터에서 옥과농협 여성조합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날 기념 쌀 가공식품 홍보 및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카페 스노우베리가 협업을 통해 출시한 바로미롱휘낭시에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며 쌀 가공식품 소비 증대와 아침밥 먹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다.

방현용 곡성군지부장은 “쌀 소비 확대를 위

해 건강하고 맛있는 쌀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로미롱휘낭시에에는 농협곡성군지부와 카페 스노우베리가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곡성에서 생산한 가루쌀 품종인 바로미2를 사용해 기존 쌀휘낭시에보다 25배 길게(long) 만들었으며 솔티, 무화과, 아몬드, 초코 등 6가지 다양한 맛으로 구성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나주경찰, 한전 MCS와 무인방범시설 기증식

나주경찰서는 “최근 다시민 가운데 운암마을 회관에서 한전MCS와 다시민 운암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자위방범용 CCTV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양 기관이 협약을 통해 고품화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7개 마을에 마을자위방범용 CCTV 28대(1천만원 상당)를 설치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마을자위방범용 CCTV 설치는 농축산물 절도 예방뿐만 아니라, 실종 치매 어르신 조기 발견을 위해 마을 진입로 등에 설치된다.

나주경찰서는 기증식에 이어 지역 주민들과 치안감담회를 갖고 중심마을 공동체 관서의 필요성과 범죄 불안지역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 토론했으며 향후 절차를 거쳐 치안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한전MCS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더 안전한 나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목포시보건소, 결핵관리 평가 '질병관리청장상'

목포시보건소는 “최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4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결핵환자 신고·보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전국 보건소와 협력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 관리, 결핵환자 신고·보고 등 총 5개 부문, 10개 최우수 및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전남도에서는 목포시보건소가 유일하다.

목포시보건소는 국가결핵 감시·관리 수행을 위한 첫 단계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신고·보고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형준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은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 받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조기 발견을 위해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핵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남도·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학여행'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13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학여행'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제도권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고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연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수학여행에는 고등 연령 학교 밖 청소년 90여명과 청소년 지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용두암, 수목원테마파크, 자동차 박물관, 피아노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갈뚝 따기와 승마 체험 등을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는다.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꿈드림 수학여행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견문을 넓히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배려심과 협동심을 기르길 바란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신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연합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양질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무안농협, 농업인의 날 기념 가래떡 나눔 행사

무안농협은 12일 “전남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무안농협 본점·지점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래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안농협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가래떡이 무료로 제공됐으며, 동시에 쌀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설명과 홍보를 배포가 이뤄졌다.

또한 무안읍 노인복지회 노성원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해 홍보물과 가래떡을 함께 전달했다.

노은준 무안농협 조합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를 활성



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조선대-KT&G 상상 Univ '신입사원 챌린지' 성료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2회에 걸쳐 국제관 역량개발실에서 'KT&G 상상 Univ와 함께하는 잡(Job)생각 Flex-up 신입사원 챌린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KT&G 상상 Univ 사무국이 협업체를 준비하는 조선대 학생에게 가상의 회사인 'Flex-up'에서 신입사원이 되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영업팀, 서비스운영/기획팀, 디지털전략팀 등 다양한 팀에 발령받은 신입사원들은 하루 동안 현직자가 제공한 과제를 수행하고, 현직자의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었다.

김재홍 조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일 경험과 현직자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기자

결혼

▲최동현(전남일보 취재2부 선임부장)·정당금 씨 장남 정군군, 박경척·정숙씨씨 장녀 예린양 =17일(일) 오전 11시 광주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1층 루체홀.

▲김원봉·임혜경씨 장남 진호(베스트디지털 제1연구소 연구원, 윤사선(건양건설 대표)·허윤숙씨 차녀 지원(MCM Korea 디자이너)양=16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5(갑대중컨벤션센터 맞은편)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010-5467-4150.

▲김재삼·김필숙씨 차남 건우군, 박충철(담양청추 대표)·김청옥씨 장녀 윤양 =17일(일) 오후 12시30분 하우스 오브 드메르 1층 지젤홀,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51(도천동 147-29). 062-228-0000, 010-3602-1966)